

‘정남진 장흥 물축제’ 여름 대표축제 자리매김



3년 만에 열린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지난 7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대한민국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장흥군 제공)

3년 만에 개최 저비용 고효율 축제 ‘문전성시’ 수익금 일부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 등에 기탁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지난 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물축제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한민국 여름 대표 축제로서 견제함을 과시했다. 축제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확대하며 2차레 주말을 끼고 행사가 진행된 점도 주말 관광객 유입에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올해 물축제는 ‘장흥, 물과 사람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장흥군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축제에 역사와 문화의 색채를 덧입히는데 공들였다. 개막 첫날 진행된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공예태후 호위 행렬을 재현한 역

사 테마 프로그램으로 연출됐다. 고려 공예태후를 배출하며 장흥이란 지명을 얻게 된 역사적 배경을 모티브로 물싸움 거리행진을 진행한 것이다. 군민회관 앞에서 출발한 퍼레이드 행렬은 관광객과 지역민이 어우러진 가운데 신나는 물싸움을 벌이며 물축제장으로 이동했다. 매일 오후 2시 지상 최대 물싸움장에서 신나고 흥이 넘치는 물싸움이 펼쳐졌다. 이어진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은 워터봄 물풍선, 물폭탄 싸움으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물축제의 아간 프로그램으로는 ‘워터樂 폴파티’가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워터樂 폴파티’는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급 폴파티지만 입장료가 없고 유명 DJ들로 라인업을 구성한 것이 인기 비결이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물축제만의 장점으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이용료가 1천원~7천원 사이인 데다, 이용객에게는 2천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되돌려 줘 지역 내 재소비를 이끌어 냈다. 지역 상인들은 몇 배로 늘어난 매출에 고무된 모습이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마트 등은 물론, 여름용품 판매하는 문구점, 의류 매장 등도 축제 기간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축제장 환경 정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도 빛났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10개가 넘는 자원봉사팀이 행사장 청소를 실시했다. 군수와 군의원, 지역 도의원에 군 공무원까지 합세한 청소 봉사단으로 축제 기간 내내 깨끗하고 안전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물축제는 매년 행사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올해도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성 군수는 “물이 가진 문화·생명·놀이 의 의미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도록 기획했다”며 “장흥을 찾은 관광객들과 물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맡겨진 자원봉사자, 지역민,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흥=노흥기 기자

“정주여건 위협 경전선 전철화 노선 변경해야”

순천시의회, 사업 보고회 열어 노선 우회 촉구 “도심 통과 교통체증 가중·정주여건 훼손 우려”

순천시의회가 기존 노선을 유지한 채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규탄하며 경전선 노선 변경·우회를 강력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보고회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전남도가 경제성 논리 만을 내세워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에 대한 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순천시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평면교차로 10개 지점에서 기존 열차 운행 횟수가 하루 6회에서 46회로 7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심 철도 주변은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정주여건은 진동·소음으로 인해 크게 훼손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순천과 이웃한 중소도시의 철도 노선 운영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철화가 진행된 남원시, 광양시, 진주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을 외곽으로 이설하고 기존 선로는 시민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사용하고 있다. 90여년 동안 사용해 온 기존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순천시 도심은 3등분돼 향후 도시 발전을 크게 해치는 용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 시의회의 판단이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6시간 넘게 걸리는 광주~부산 간 구간을 단선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남해안 고속철도의 핵심 선로이자 영호남 교류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동서 통합의 상징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 시의회는 “재정적인 이유로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도심부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희 시의회 의장은 “순천은 경전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영호남 철도교통

전략적 거점지로 10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갖고 있는 위상이 높은 도시”라며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회노선 변경 등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2019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시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기존 노선 활용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지난 제248회와 제256회 임시회 등 2회에 걸쳐 노선 변경 촉구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촉구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전남지사,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송부됐다. /순천=남정민 기자

담양자원봉사센터, ‘비대면 플로깅’ 추진

탄소중립 실천...용마루길·관방제림 일원 15-26일 진행

담양군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비대면 플로깅 운동을 추진한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Plocka Upp’(줍다)와 영어 ‘Jogging’(조깅)의 합성어로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이다. 산책·조깅 등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다. 활동 장소는 관방제림, 용마루길 일원

이며 담양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단체 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담양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민지 주민복지과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비대면 플로깅 운동 참여로 건강도 지키고 쾌적한 담양군이 실현될 것 기대한다”며 “일상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곡성군 ‘기차마을 텀앤덤’ 이벤트

내달 4일까지 물놀이 수타대전 등 프로그램 다채

곡성군은 8월 “지난 6일부터 9월 4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주말·공휴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차마을 텀앤덤’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텀앤덤’은 입장권 한 장으로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을 즐기고 물놀이도 덤으로 즐기자는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한여름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기차마을에서는 기존 음악분수 물레에 이벤트 존을 마련하고 지난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이벤트를 운영하는 8월

첫 주부터는 본 프로그램으로 오전 11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다양한 물놀이 게임을 펼치는 ‘섬진강기차마을 수타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버스킹과 마임, 마술 공연을 선보인다. 관광객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물놀이 이벤트를 통해 더위를 식히며 다양한 증정품도 받아볼 수 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초부터 매달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곡성=이호산 기자

‘고흥 성불사 석조여래입상’ 道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고흥군은 8일 “고흥 성불사 석조여래입상(사진)이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고흥 성불사 석조여래입상’은 고려군 도화면 봉룡리에 소재한 성불사 미륵전에 봉안된 석조불상이다. 30일 간의 예고기간이 지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확정될 예정이다.

석조여래입상은 일찍부터 미륵절로 불리고 있던 곳에 세워져 있던 석조여래입상을 세워 1976년 보호각을 세우고 절 이름을 성불사라 부르면서 주불전인 미륵전에 봉안, 주불로 모셔왔다. 자연석을 다듬어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한 광배 형태를 만들고 중앙에 여래입상을 조각했다. 네모형의

얼굴에 좁은 어깨, 양쪽 어깨를 다 감추는 대의와 ‘U’자형의 옷주름, 왼손을 밀로 내리고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려 엄지와 검지를 구부린 손모양이 특징이다. 고려 전기에 유행한 전형적인 특징이 보이며 미륵신앙을 추구한 지역민의 신앙적 일면을 볼 수 있어 고흥지역의 불교미술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



자료 평가받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h2>상무지구(상가매매)</h2>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h2>당진(신축)원룸매매</h2>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립니다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중급반</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 </tr> <tr> <td>전남</td> <td>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 </tr> <tr> <td>시외</td> <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								